THE EMPTY CHAIR



문턱 3

빈 의자

방 하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방향 하나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

앞의 사람들은 사라진다.

뒤의 사람들은 남는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유산이 재산, 소유물, 간직하거나 물려줄 물건들의 문제라고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진정한 유산은 눈에 보이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옷장 안에 있지 않다.

서랍 안에 있지 않다.

서류 안에 있지 않다.

행동 속에 산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공식을 남기지 않았다.

나에게 지침서를 건네주지 않았다.

나에게 삶의 상세한 지도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

설명하기 훨씬 더 어려운 무언가를 남겨 주었다.

세상에 서 있는 하나의 방식.

젊었을 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자식들은 좀처럼 자기 아버지를 또렷하게 보지 못한다.

당연하게 여긴다.

영구적인 존재로, 거의 자연의 법칙처럼 여긴다.

바다처럼.

하늘처럼.

계절의 흐름처럼.

살피지 않고 바라본다.

이해하지 못한 채 듣는다.

자신도 모르게 흉내 낸다.

그러다 모든 것이 바뀌는 나이가 온다.

여러 해 전에 내뱉어진 말들이 되돌아온다.

몸짓들이 다른 의미를 띤다.

침묵조차 새로운 목소리를 얻는다.

우리보다 앞서 간 이들을 정말로 알기 시작하는 것은 그때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책임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을 실천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사람들은 가르쳐진 것을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살면서 겪은 것은 아주 많이 기억한다.

한 남자가 어려운 약속을 지킬 때, 누군가 바라본다.

탓할 사람을 찾지 않고 패배를 마주할 때, 누군가 바라본다.

박수를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의무를 계속 다할 때, 누군가 바라본다.

흔히 그 누군가는 아들이다.

딴 데 정신이 팔린 듯 보일 때조차.

멀리 있는 듯 보일 때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일 때조차.

바라본다.

그리고 간직한다.

내가 어른의 삶에서 내린 많은 결정들은 훨씬 더 먼 세월 속에 박힌 뿌리를 가지고 있다.

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연수 과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한 집에서 태어났다.

한 가족 안에서.

그때는 평범해 보였고 오늘의 내가 비범했다고 알아보는 행동들의 총체 안에서.

시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하나를 기억한다.

모든 아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다.

대화 도중에.

문제를 마주하는 동안.

한 문장을 내뱉는 동안.

결정을 내리는 동안.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본다.

하나의 표정.

하나의 태도.

하나의 반응.

그리고 어떤 존재들은 결코 정말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형태를 바꾼다.

그뿐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서로 다른 나라들을 건너다녔다.

서로 다른 문화들.

서로 다른 언어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일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다.

어디에나 같은 그리움이 존재한다.

어디에나 우리보다 앞서 간 이들에 대한 같은 존경이 존재한다.

어디에나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겨 준 누군가에게 걸맞고 싶다는 바람이 존재한다.

말이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

지리가 바뀐다.

그러나 감정은 그대로 남는다.

모든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거쳐 세상에 오기 때문이다.

아무도 영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연장선이다.

한 이야기의.

한 가족의.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한 선택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사람을 그가 가진 것으로 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가 남기는 것으로 잰다.

그리고 남기는 것은 남기려고 계획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경력을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쩌면 원칙 하나를 남긴다.

안정을 남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쩌면 용기를 남긴다.

대답들을 남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들을 찾는 방식을 남긴다.

이것이 유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질긴 부분.

나머지 모든 것이 닳아 없어졌을 때도 계속 살아 있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잊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래된 두려움이다.

깊이 인간적인.

그러나 나는 다른 형태의 영속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동상들의 것이 아니다.

사진들의 것이 아니다.

기념비들의 것이 아니다.

참된 영속은 결과들 속에 산다.

계속되는 선함 속에.

모방되는 존엄 속에.

손에서 손으로 건너가는 책임 속에.

다른 성품을 낳는 성품 속에.

나의 아버지는 바로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다.

결과들 속에서.

기억으로서가 아니다.

존재로서.

때때로, 힘든 날이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자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떤 길을 따를지.

어떤 무게를 받아들일지.

어떤 책임을 짊어질지.

그리고 거의 언제나 대답은 아주 오래된 곳에서 온다.

주소 없는 곳.

지리 없는 곳.

기억과 감사로 이루어진 곳.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 하나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 앞에서 걷기를 그만둘 뿐이다.

우리 안에서 걷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떠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른 방식으로 여정을 계속한다고 말한다.

나의 결정들 속에서.

나의 말들 속에서.

나의 실수들 속에서.

나의 책임들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방식 속에서.

내가 시간을 마주하는 방식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언가가 살아 있는 한, 그의 한 부분은 내 곁에서 계속 걸어갈 것이다.

조용히.

진짜 아버지들이 언제나 그래 왔듯이.